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창환	영문	LEE CHANG HWAN
학과(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학번	201**580
파견 학기	2017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입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며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접해보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기계시스템공학과와 가장 밀접해 보이는 나라인 독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비자발급은 예나에 가서 직접하는 것이니 국내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숙사는 보통 우리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갈 경우 칼자이트, 모리츠, 직프리 이렇게 세 곳 중 하나를 택하여 가게 되는데 순서대로 미세한 차이로나마 가격대가 오르며 2인실 4인실 4인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직프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항공권은 미리미리 끊어 최대한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끊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니 왕복권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외국어과정일 경우 그 학교에 행정실을 찾아가 서명 받은 것과 수업료납부 영수증을 교수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강신청 과정은 학교 튜터가 설명해 줍니다.

서류 준비에는 여권 사진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저는 독일에 예나응용과학대학을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으며 예나라는 도시 자체가 대학 도시 같이 대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도시이기에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나는 독일의 동쪽에 있어 베를린과 드레스덴, 체코의 프라하까지 버스로 4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 쾌속 기차로 4~5시간이 걸리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용이한 도시입니다. 봄 학기에는 초기를 제외하면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가 형성되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모두 외국어코스(영어)만 수강하였으며 외국어코스는 보통 예나응용과학대학이 아닌 옆에 위치한 예나종합대학에서 받게 되며 A1, A2, B1, B2, C1, C2순으로 난이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A1이 가장 쉬운 반이며 C2가 가장 어려운 반입니다. 독일어 코스는 예나응용과학대학과 종합대학 두 군데 모두 실행하는 것 같았으나 봄학기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2학기 적용되기 때문에 가을학기에 가야 A1반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여름방학 때 보통 특강처럼 A1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처음 기숙사에 신청할 때 배게피, 침대피, 이불, 이불피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며 1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보증금은 300유로 정도였으며 월세는 약 210유로로 기억합니다. 생활비는 저같은 경우 독일에만 있지않고 틈이 나는 대로 여행을 다녀와 교환학생 기간 중 약 10개의 나라를 돌아다녔으며, 독일 내에도 약 10곳의 도시를 돌아다녔고 그 여행비까지 합산하면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총합은 약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약 7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특별한 프로그램/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열어 펜싱, 풋살, 볼링 동아리를 수강하였습니다. 보통 한 동아리당 한학기에 30유로 미만으로 가입비를 내며 그 이후엔 별도의 요금을 내진 않습니다.(특수한 동아리 제외)
동아리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기 쉽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싼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나 추천하고 싶지 않은 동아리 없이 대체적으로 모두 좋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에 가는 목표의식이 제대로 있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어 공부를 하겠다면 한 학기로는 부족한 면이 적잖아 있으니 미리 공부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 회화 또한 수업만 듣는다고 늘진 않으니 집에 와서도 별도의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화적인 차이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사람마다 여유 있는 분위기가 있어 공원 산책이나 별을 찌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하며 공부보단 유럽의 다양한 곳을 다니고 다양한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돈은 예상보다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토익이나 토스같은 영어 자격증을 중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 대학생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것에 놀랐으며 4~5명 중 한명 꼴로 3~4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었습니다. 유럽의 대학 체제가 우리나라같이 입시와 취직을 위한 체제가 아닌 진리 추구같이 보다 더 대학다운 대학같아서 감명받았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